

공동체 소식

성모성월 안내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풍요로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지난 1965년에 발표한 '성모성월에 관한 교서'에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 가정 공동체는 성모성월에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미를 통해 마리아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모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치를 이루고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간 성모님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뵈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의 삶을 두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1항)인 교회의 전형(典型)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본당의 날 안내

본당 주보성인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축일이 5월 29일입니다. 따라서 본당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29일에 가까운 주일이나 5월중에 본당의 날로 보냅니다. 올해는 5월 26일 주일이 본당의 날이 됩니다.

제단 공사 안내

현재 Holy Trinity 본당에서 Stone Chapel 제단 공사중입니다. 제단이 약간 어수선 한 점 양해 바랍니다.

본당야외미사 감사

본당 야외미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사안내

- 6월~8월 본당 토요일신심미사 없습니다.
- Holy Trinity 본당에서 6월부터 8월까지 평일 06:30, 토요일 07:30 미사를 Stone Chapel에서 봉헌합니다.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34	513	170	134
차 주	131	512	180	245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요셉)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차 주	최은미(아녜스)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진(한나) 김지안(요한)
차 주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한나) 김정훈(로베르토)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차 주	홍순익(마르띠노), 김동술(요한)

애찬 봉사자

금 주	4조: 김화년, 안현숙, 송진희
차 주	5조: 김말자, 박계숙, 유계화, 김수연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냅시다.

그림 묵상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3-35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4,21ㄴ-27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다.>

화 답 송 :



◎ 저의 임금하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5ㄴ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31-33 34-35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생명의 말씀

하나의 길에서



구약성경의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건은 이집트 탈출과 광야생활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느님을 '함께 있는 분'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끄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40년간의 광야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은 하느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중심은 하느님께서 직접 쓰셔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전해 준 십계명입니다. 열 개의 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전해주었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십계명 안에 담긴 것은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하느님의 길을 걷는 가장 바른 방법으로 여겨졌고 어렵지 않게 이런 내용을 구약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세 계명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필요한 것을,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 사이에서 필요한 것을 규정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상호 간의 계명인 셈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벅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수난이 머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황금률이라고도 부르는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얼핏 보면 열 개에서 두 개로, 두 개의 계명에서 하나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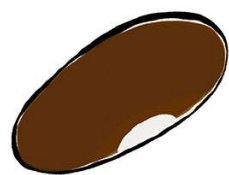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함께한 사랑,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 준 사랑,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사랑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 역시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애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광야의 십계명에서 예수님의 계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시대에 따라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은 시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엄마! 이게 어떤 씨앗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

아들! 그게 어떤 씨앗인지를 알 수 있지요. 심어봐야지.

심어보면 어떤 씨앗인지 알 수 있게 되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평창 올림픽

선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림픽은 꿈의 무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니...! 드디어 기다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던 올림픽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첫 목표는 선발전의 통과였습니다.

주위의 몇몇 분들도 '조금 늦은 거 아닐까? 나이가 많아서...'라고 이야기 했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리라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어찌지? 사람들의 염려를 무릅쓰고 출전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찌지?'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커질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올림픽 이후 부상을 이겨낼 때 제게 동기가 부여가 되었던 올림픽이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어찌나 간절했는지, 어느 날부터 연습장에 들어갈 때 얼음에 손을 대고 성호경을 굿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건 아닐까?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은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저를 조금 뻔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느님,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번만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당신께 저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스스로 잘해서 하느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팀에 선발되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에 다시 참가하게 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올림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선수촌 안의 작은 기도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 그리고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 신부님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올림픽 전에도 신부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가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줘요. 미사 봉헌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어요.'

선발전을 마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창올림픽은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멋진 결과는 없었습니다. 멋지게 준결승전을 치르고 결승전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 달리던 중 후배 선수가 넘어져 입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는 하느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뻔뻔함이 생겼고, 신부님과 돌이켜서만 드린 미사의 추억도 생겼고, 메달이 없어도 '고생했다. 자랑스러웠다.' 말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저의 올림픽은 너무도 행복한 올림픽이었습니다.

다시 올림픽을 도전한다고 하면, '더 늦은 나이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성호경을 굿고 얼음판을 나서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함께해주세요.'

곽윤기 스테파노 | 쇼트트랙선수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원희진 레아